



반산스님의

경전읽기

화엄경 ⑩

다음은 보살이 증생과 함께 동사섭(同事攝)하기 위한 제 7. 등수순입제중생회향(等隨順一切衆生廻向)의 계송이다.

“보살이 많은 증생 제도하려고 가장 좋은 회향들을 항상 닦아서 삼(三)계의 증생들을 인락케 하며 장애에는 위없는 과(果) 이루게 하고 / 이와 같이 진실한 모든 불자들이 여래의 법으로써 화하여 난 것 모두가 능히 이렇게 잘 회향하면 세간의 모든 의혹 다 없어지리.”

두 번째 계송의 ‘참된 불자는 여래의 정법과 교화를 받고 태어난다’는 내용은 대승경전의 기본사상이다. <법화경> 방편품에 “오늘에야 비로소 부처님 참된 아들이니 부

“부처님이 말씀한 모든 보살의 광대하고 좋은 행 성취하려면 마땅히 이 회향에 머무르지 아니 불자들 보현이라 이름하리라 / 한 킬로 허공 재어 끝낼 수 있고 온 세계의 티끌도 셀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신선이여 불자의 머무른 행과 원은 측량 못한다.

정량 스님은 소에서 밝히기를, 여기서 덕이 깊고 뛰어남을 밝힌 것은 먼저 등지이상(等地上)의 보살행이기 때문이니, 첫째, 원융한 가르침이며 둘째, 뛰어난 원력을 의지한 까닭이다 (一, 圓融教故 二, 約殊勝願力故)라고 하였다. 비록 심회향품에 설명된 내용이지만 원력이 수승한 보살이라야 가능하다는 내용 이리라.

화엄경에서 심회향품은 경문에 그 사상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신라대

회향 잘해야 세간의혹 벗어

원효 스님 속세 뛰어들어 보살행 실천

처님 입으로부터 나와 법(法)으로 부터 화(化)하여 나서 불법의 부분을 얻은 줄 알았나이다(今日 乃知眞是佛子 從佛口生 從法化生 得佛法分)라고 말씀한 것도 유명한 내용이다.

다음은 제8. 진여상회향(眞如相廻向)의 내용이다.

“그지없는 삼(三)계와 모든 세계와 일체의 중생들과 여러 가지 법 그 속에 있지만, 있는 데 없어 이러한 행으로써 회향하더라. / 비유하면 진여의 본성품같이 보살이 이와 같이 큰마음 내니 진여의 있는 데는 모두 다 있어 이러한 행으로써 회향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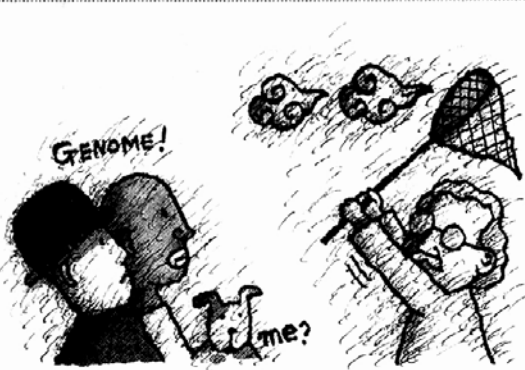
다음은 제9. 무착무박해탈 회향(無着無縛解脫廻向)의 내용이다. “한 몸 속에 온 법계의 말할 수 없는 몸을 용납하여도 증생계는 증감이 없으며, 한 몸과 같이, 내지 법계에 가득 한 모든 몸도 역시 그러하리라.

또 제10. 등법계무량(等法界無量廻向)에서는 이런 계송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의 원효 대사는 분황사(芬皇寺)에서 <화엄경소(華嚴經疏)>를 집필하다가 심회향품에서 절필(絶筆)하고 자신이 직접 보살행을 위해 증생 속에 뛰어 들어 난행고행의 보살행을 실천하여 거지나 서민에 이르기 까지 부처님 명호를 알게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에서 우리는 불교의 회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회향을 잘 하면 모든 증생이 불법을 알도록 이끌 수 있지만 회향을 잘 못 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리라. 그래서 절집 속담에 “참된 선지식인지 아닌지는 거화(擧火) 때에야 비로소 알아 볼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이렇게 하여 다섯 번째 도솔천궁 설법이 끝이 난다(會住芬皇寺 冀華嚴 至第四十廻向品 終 乃絕筆 <삼국유사 권4> 元曉 不罷, 或制疏以講華嚴 或撰琴 以樂阿字 或闍闍寓宿 或山水 坐禪 任意隨機 都無定檢 <송고 승전 권4 신라국왕릉사원효전 > 참조)

■ 불교사상사상연구소 연구원



그림·문병성

게놈 프로젝트 환상은 금물

불교와 과학 <37>

결핵 적혈구 빈혈증이라 불리는 질병이 있다. 일종의 유전병으로 중앙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서 자주 발생한다. 이 빈혈증은 어떤 유전자 혈액 단백질의 돌연변이로 생기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이 돌연변이체는 혈액에서 산소를 날라다 주는 헤모글로빈의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세포 조직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강한 빈혈 증세를 일으킨다. 어린이 뇌에 산소 공급을 원활히 해주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졸중에 걸리고, 살아 남은 어른이라도 심장병이나 성장 저해 현상 등 인체 손상이 매우 큰 유전병이다.

이 유전병의 원인은 특정하고 단일한 어떤 유전자의 변형 때문이다. 이렇게 한 특정 유전자가 특정 형질을 유발시키는 유전의 현상을 ‘단순 형질의 유전’이라고 부른다. 단순 형질의 유전은 한 유전자가 하나의 단백질을 발현시키고, 그 단백질은 한 가지 특정 형질을 발현시키는 경우를 일컫는다.

단순 형질의 유전 이야기를 여기서 쓴 이유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연구결과가 뉴스 거리로 떠들썩하게 나온 요즘 워낙 한 가지 형질이나 질병의 원인이 특정 단일 유전자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돈을 잡는 식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환상이나 과학적 신화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서다. 특정 단일 유전자가 특정 형질이나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생각을 한마디로 말하면 유전자 ‘결정론’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최근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환상은 유전자 결정론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쇠, 비만 혹은 두뇌 아이큐나 심장병 등의 특정 형질을 유발하거나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가 존재하여 그 특정 유전자의 DNA 구조의 암호만 밝혀 수 있다면 모든 인간 생명의 비밀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과학기술이 특정 형질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환상이 바로 유전자 결정론이다.

물론 이미 40년 전에 발견된 결핵 적혈구 빈혈증은 그 유전 메커니즘이 매우 간단한 ‘단순 형질의 유전’의 한 임상 사례로 일종의 유전자 결정론의 실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인간의 전체 형질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결핵 적혈구 빈혈증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간단히 유전자 결정론의 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이 빈혈증은 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 지역은 원래

말라리아가 창궐하는 지역이다. 아직도 말라리아는 전지구적으로 볼 때, 해마다 2억에서 3억 명 정도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그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결핵 적혈구 유전체를 지닌 사람들은 말라리아 병원충에 대하여 강한 저항력을 나타내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는다. 한 사람의 특정 유전 형질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체를 반반씩 나눠 갖고 있다. 그 반쪽의 두 유전체가 모두 결핵 적혈구 유전체일 경우에만 빈혈증 유전병이 발병한다. 한쪽만 결핵 적혈구인 경우는 빈혈증 발병이 없고 그 대신 예방 접종 없이도 그 무서운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게 된다. 짐으로 자연의 신비로운 조화가 아닐 수 없다. 아프리카의 거센 풍토병에서도 살 수 있을 만한 자연환경과의 자연스러운 조화는 결코 현대 생명공학의 신화인 유전자 결정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순전히 과학이론으로만 따진다면 결핵 적혈구 빈혈증을 일으키는 유전체를 소유한 사람들이 강한 질병 증세 때문에 빨리 사망하게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런 유전체 소유 환자들이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질병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질병이 없어진다면 아마도 말라리아 질병은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것이고 끝내는 빈혈증이 아니라 말라리아 때문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다 죽어 없어지거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살아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될 것이다. 유전자는 그렇게 결정론적이고 단순한 기계적인 메커니즘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순 형질의 유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결핵 적혈구 빈혈증조차도 이렇듯 다른 노쇠현상, 어떤 유전질환 등 대부분의 형질을 나타내는 복합 유전체들은 유전체끼리의 내부적인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유전체와 외부 환경과의 선택작용의 결과로 표현형질이 드러난다. 그 내적인 상호작용과 외적인 선택작용의 결과는 그렇게 단순한 일의(一)적인 과학적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의 게놈 프로젝트와 관련된 생명공학은 모든 유전자 암호를 다 풀 수 있다는 유전자 결정론에 근거한 기술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아마도 불교의 인과관계를 몸으로 익히고 있는 과학자라면 혹은 그런 시민이라면 그렇게 단순하고 일의적인 결정론을 전과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과학 뉴스 토픽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 최정희/성지대 교수 jchoi@chak.sangji.ac.kr

스님 1432명 사찰 추방 의문사·강제 낙태도

지구촌 불교 / 中 티베트 탄압

베이징(北京)이 200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자 티베트 망명정부나 서방 일부 국가와 인권단체들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비난하는 가운데, 15일 ‘중국의 티베트 및 달라이 라마 탄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나왔다.

망명 정부 산하기관인 티베트인권민주센터(이하 TCHRD)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종교 자유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과 인종차별, 아동 및 여성인권 침해 사례 등을 상세히 밝히고, “국제사회가 2008년 하계 올림픽의 베이징 개최를 묵인한 것은 경제 성장에만 눈이 팔려 중국정부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TCHRD의 보고서에 따르면, 티베트에 대한 중국 공산정권의 탄압의 정도는 지금까지 확인된 10건의 고문 관련 의문사 중에서 6건이 지난해에 발생할 만큼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보고서는 또 작년 한해 모두 16건의 실종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히면서 형무소와구치소에서 구타, 전기고문, 족쇄 채우기, 강제노동, 독방 감금, 치료 거부 등 각종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반체제 인사로 지목된 티베트 스님이 중국 정부군에게 강제 연행당하는 모습.

망명 티베트인권단체 ‘보고서’ 퍼내 “베이징 올림픽 불참운동 벌이겠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 정부의 ‘무신론’ 3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중국 본토와 티베트자치구 등에서의 종교 박해도 한층 강화돼 1432명의 스님이 사원에서 추방된 점과 제11대 판첸라마를 포함한 615명의 정치범과 양심수 가운데 79%가 스님인 점 등을 소상히 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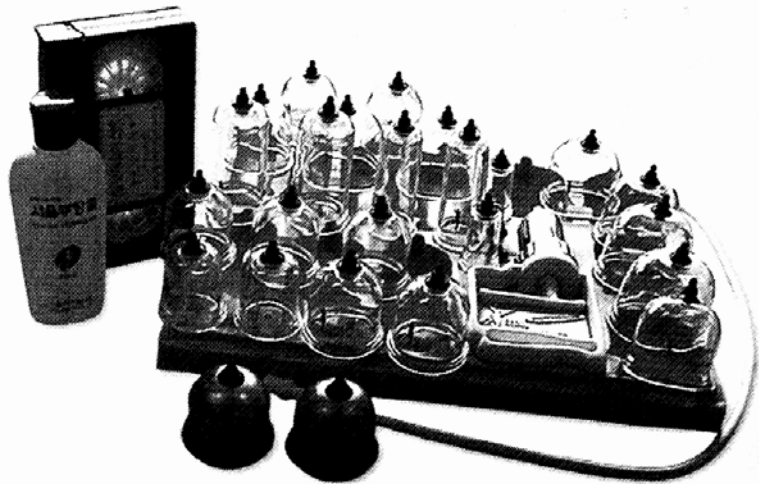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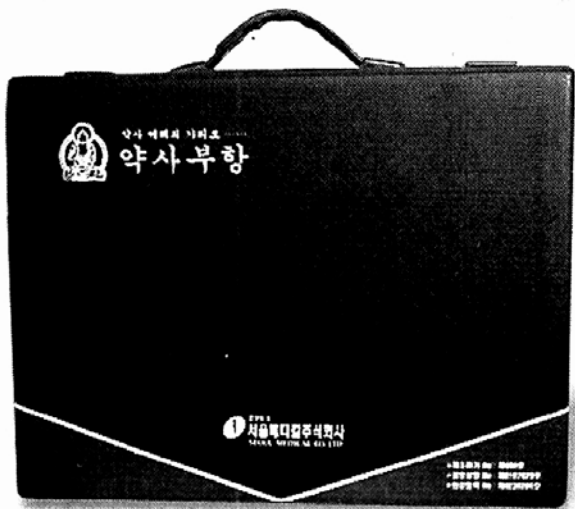
이밖에 중국 정부는 티베트족을 소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강제 낙태와 불임수술까지 자행하고 있으며, 티베트 현지 거주 중국인과 티베트 원주민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어 작년 한해 2,474명이 티베트를 등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8년 하계 올림픽 베이징 개최 결정과 관련해 티베트 청년의회는 국제적인 불참 캠페인을 전개할 뜻을 밝혔고, 국제인권단체나 스웨덴, 프랑스 등은 중국 인권상황에 대해 면밀한 감시에 착수할 분위기다. 베이징 올림픽 불참 캠페인을 공언한 티베트 청년의회는 “본격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만, 이 캠페인은 티베트인들의 의무일 뿐 아니라 자유를 사랑하는 전 세계 시민들의 의무라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의 올리카 메싱 체육장관은 “종교탄압은 물론 공개처형제도 등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올림픽 개최지로 선택한 국제올림픽위원회(Olympic Committee)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맹비난했고,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 감시단체 역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 공급 스폰서 업체들에게 중국이 인권상황을 개선토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오종욱 기자 goboo@buddhapa.com

불자님의 건강을 藥師附缸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 주의 : 부항은 소독이 중요합니다. 삶아서 사용하세요

타원부항의 신비를 느껴 보세요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